

생태문명을 지향하여

- 화이트헤드적 관점에서 -

장 왕 식(감리교 신학대학교)

【주요어】 생태문명론, 기계론, 유기체 철학, 범-경험주의, 심층생태학

【요약문】 이 글은 생태문제의 근원을 철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 새로운 생태문명의 건설을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대안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에 기초해 추구된다.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볼 때 생태학적 문제는 근대주의의 핵심 이론인 기계론과 인간-중심적 주체론에 연관되어 발생한다. 물론 이 두 이론은 근대문명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생태학적 문제도 함께 가져왔다. 논자는 이 두 이론이 어떻게 근대주의의 핵심이 되었는지를 일차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이들이 어떻게 생태학적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는지도 설명한다. 하지만 이 글은 단지 근대주의의 부정적인 면만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도 함께 모색한다. 인간중심적 주체론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범-경험주의(pan-experientialism)로서 응답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으며, 기계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체의 철학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겠다. 또한 이 글은 화이트헤드의 생태철학과 심층생태학의 주장을 비교한다. 논자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심층생태학의 입장과 여러 면에서 유사점을 지닌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다. 그의 유기체 철학은 비-인간적 존재자들의 주체성을 과감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인간과 다른 존재들 간의 무차별적 동등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층생태학과 구별된다.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생태문명론이 인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추가로 보게 될 것이다.

I. 서론

이 글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입장에서 생태학적 문제의 근원을 분석한다. 그 후 유기체 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생태문명의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화이트헤드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생태학적 문제는 대부분 근대주의(modernism)가 노출한 문제와 연관된다. 따라서 생태문제에 대한 규명은 먼저 근대주의의 핵심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시작해야 한다. 논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근대주의와 근대성(modernity)의 핵심 문제는 인간-중심적인 주체론과 기계론이다. 물론 근대주의와 근대성의 중추적 특징인 이 두 개의 이론은 근대문명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생태학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부정적인 결과도 빚어냈다. 논자는 이하에서 화이트헤드 형이상학이 제공하는 철학적 도구들을 사용해 이 두 개의 이론이 어떻게 근대성의 핵심 논리가 되었는지 설명하겠으며, 동시에 어떻게 생태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상적 배경이 되어 왔는지를 파헤치겠다.

나아가 이글은 생태학적 문제와 연결된 근대주의의 부정적인 면만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근대주의의 이론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극복하려 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본 글이 지향하는 두 번째 목적이다. 논자는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이 인간중심적 주체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범-경험주의(pan-experientialism)로서 응답하고, 기계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체의 철학으로 맞대응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겠다. 이 과정에서 화이트헤드 형이상학이 어떻게 생태학적 대안을 제시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철학적 대안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분야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고 논자는 믿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화이트헤드의 생태학적 제안들이 온전한 적합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느

낄 수도 있다. 특히 심층생태학의 논리를 따라서, 급진적인 형태의 환경운동을 펼치는 이들에게는 화이트헤드가 아직도 인간중심주의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생태학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때, 화이트헤드가 여전히 인간의 책무를 가장 중시한다는 점이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본다. 하지만 비록 심층생태학의 지지자들이 제기하는 이런 견해에 나름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런 비판적 견해는 화이트헤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논자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오히려 심층생태학과 많은 부분에서 핵심내용을 공유한다고 말하겠으며,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화이트헤드가 심층생태학의 난점들에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해 예측해 보이겠다.

본 논문이 다루게 될 마지막 작업은 실천과 적용의 문제이다. 인류는 이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태주의를 시도해 왔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실천하는 문제는 언제나 많은 이들에게 난제로 등장해 왔다. 논자는 왜 생태학적 주장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분석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생태문명론의 정립만이 실천과 적용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으며, 하나의 대안으로 화이트헤드적 문명론을 제시하겠다.

II. 주체의 문제와 범-경험주의적 대안

화이트헤드는 자신의 철학에서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그를 “뺏속까지 생태학자”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철학이 보여주는 자연주의적 관심 때문이라 할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자연주의적 관심은 그의 수많은 저서들 안에서 쉽게 발견된다. 특히 이는 화이트헤드가 대부분의 저서에서 자연과 생명

10 장 왕 식

의 문제를 언제나 빠짐없이 다룰 때 잘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연주의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태학적 철학의 모범적 예시를 보여주었는가?

논자의 입장에서 이를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즉, 화이트헤드는 근대주의의 철학적 전제가 되어왔던 인간 중심적 주체의 철학과 기계론이 심각한 오류를 지니고 있음을 간파했는데, 따라서 바로 그 두 개의 이론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자연주의 철학을 생성해 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이론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첫 과제가 될 것이다.

먼저 인간중심적 주체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자. 인간중심적 주체의 철학이란, 단지 인간의 주체만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그 외의 여타 존재들을 모두 객체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주변적인 타자로 놓는 입장을 말한다. 이런 입장이 어떻게 생태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입장이 진술하는 핵심 내용을 보면 명백히 드러나듯이, 만일 인간만이 주체이고 다른 존재들은 객체이거나 주변적 타자라면, 이때 인간은 자신의 주체적 목적이 지향하는 의도와 방향을 따라 자연을 대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생태계의 모든 사물들을 인간 위주로 제어하고 이용하는 입장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최종적으로 자연의 착취와 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지적에 동의할 수 있다면, 인간중심적 주체의 철학의 의미와 그것이 지닌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화이트헤드가 인간중심적 주체의 철학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곧장 넘어가 보자.

화이트헤드가 인간중심적 주체의 철학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여러 가지다. 우선 유기체의 철학이 그 중 하나이며, 개혁된 주관주의 원리(reformed subjectivist principle)도 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개념 하나 하나를 별도의 지

면을 만들어 상세하게 논의할 여유가 없기에, 이하에서 논자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화이트헤드적 개념을 하나 택해 그것을 토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를 시도하겠다. 이를 위해 논자가 여기서 택한 개념은 “범-경험주의(pan-experientialism)”이다.

사실 “범-경험주의”는 화이트헤드가 직접 사용한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중심적 주체의 사고의 오류로부터 탈피하게 되는 배경을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범-경험주의라는 것에 많은 화이트헤드미안이 동의하는데, 본래 이는 미국 클레어몬트 Claremont의 과정사상가 데이빗 그리핀 David Griffin이 만들어낸 용어이다(그리핀 2004: 184, 211).

범-경험주의란 문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존재가 경험을 향유한다는 입장으로서, 여기서 지칭하는 그 존재가 하나의 전자(electron)이든 혹은 미생물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구 위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무엇이든 고유의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즉, 모든 존재들이 본래적 가치를 갖게 되는 근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 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화이트헤드에게 경험이란 하나의 존재를 만족(satisfaction)으로 이끌게 되는 도구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화이트헤드에게 있어서 하나의 만족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존재가 과거의 대상에서 오는 여건(data)들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종합하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자신 앞에 주어진 여건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종합하는 과정을 합생(合生, concresc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표현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경험의 향유와 만족이 주체성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 화이트헤드에게서는, 한 존재자가 과거를 종합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바로 이때 해당 존재에게 주체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그 존재가 지닌 본래적 가치(intrinsic value)를 입증해 낸다.

이렇게 모든 존재자가 여건을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적 경험을

12 장 왕 식

갖는다는 데서 예외가 없다는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근대주의가 지닌 주체 중심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 준다. 왜냐하면 근대주의나 근대성이 강조하는 주체는 언제나 인간중심적인 주체이었기 때문인데, 범-경험주의는 우리가 이런 인간중심주의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주체 이해에서는 언제나 인간만이 이성의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만이 온전한 경험을 누리는 주체로 주장된다. 경험에 대한 이런 이해를 근거로 하여, 다른 여타 존재들을 단지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가치만을 지닌 것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이에 반해 화이트헤드에게서는 모든 존재와 사물들이 경험을 통한 종합의 능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주체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화이트헤드는 탈-인간중심적 주체의 철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혹자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과거를 종합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주장에 여전히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이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인간 이외의 열등한 존재자들도 과거를 종합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데, 이는 정말 사실인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경험은 어떻게 주체적 경험이 되는가?

화이트헤드는 이를 방금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개혁된 주관주의 원리(reformed subjectivist principle)”를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범-경험주의가 탈-인간중심적인 주체의 철학을 말할 때 동원하는 개혁된 주관주의는 다음과 같은 그의 촌철살인의 명제에서 간단히 이해될 수 있다. 즉, 화이트헤드는 말하기를, “의식은 경험을 전제하지만, 경험은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화이트헤드 1978a: 79). 한마디로 화이트헤드에게서 경험은 반드시 의식적 경험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경험이란 전자(electron) 같은 미립자의 느낌에서 시작해 동물적인 느낌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무의식적 느낌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느낌으로서의 경험은 해당 존재자가 아무리 미미한 수준의 경험능력을 갖더라도 대상으로부터 오는 여건

들을 종합할 능력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찰스 버치 Charles Birch와 존 캅 John Cobb은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게서 보듯이 주관적인 고통과 기쁨의 느낌을 갖는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행동양식들이 동물들에게서도 발견 된다”고 주장한다(찰스 버치 & 존 캅 2010: 204).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이유로 범-경험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중심이 되는 주관주의적 견해에서 벗어나도록 만들 수 있는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그것이 느낌이론에 근거한 개혁된 주관주의를 말함으로써, 인간만이 독점하던 주체를 모든 존재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이트헤드에게서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그것이 전자(electron)이든 미생물이든 하나의 경험을 가지며 어떤 면에서 비록 초보적 수준일지라도 낮은 수준의 감성과 인지능력을 갖는 것으로 주장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은 언제나 타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이런 면에서 해당 존재에게 고유의 본래적 가치와 주체성을 제공한다. 화이트헤드 식으로 이를 직접 표현해 보면, 하나의 경험적인 존재, 혹은 경험적인 사건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 존재(actual entities)가 되는 것이며, 이는 스스로 고유의 가치를 지니는 주체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물론 화이트헤드의 경험이론에서 하나의 주체가 되는 과정에는 언제나 타자라는 여건이 먼저 전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체의 탄생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타자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면서 그 후 타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며, 단지 이렇게 먼저 타자의 영향 하에 놓이는 한도 내에서만 주체가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 화이트헤드적 범-경험주의가 어떻게 탈-인간중심적 주체의 철학을 낳았으며, 일종의 정통 생태주의 철학을 예견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당장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즉, “그렇다면 화이트헤드의 범-경험주의는 범-정신주의, 혹은 범-영혼론도 허락하는가?” 에

14 장 왕 식

를 들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화이트헤드의 범-경험주의는 하나의 바위도 경험을 향유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혹은 “바위도 고유의 본래적 주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바위의 주체성은 동물이나 인간의 것에서 차별성을 갖지 않는가?”

이런 질문은 생태학적 문제를 다룰 때면 언제나 제기되는 질문이거나 화이트헤드처럼 범-경험주의를 외치는 철학자에게는 회피될 수 없는 질문이다. 논자는 곧 후속 절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우리는 근대성의 문제를 일으킨 또 하나의 장본인이 기계론이라고 화이트헤드가 지적했기에 이번에는 기계론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넘어가 보자.

Ⅲ. 기계론의 문제와 유기체론

화이트헤드는 근대성이 지닌 약점의 하나로 기계론을 거명했거니와, 실제로 기계론은 생태학적 입장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자주 지적되어 왔다. 우선 화이트헤드가 먼저 이런 사실을 『과학과 근대세계』에서 강조했고 (화이트헤드 1991: 83-90), 이어서 최근에는 데이비드 그리핀 David Griffin이 이런 점에 대해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데이비드 그리핀 2010: 41-59). 그들에 따르면, 기계론이 생태계에 가져오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 그것이 인간중심주의에 빠져서 여타 피조물의 고유한 본래적 가치를 폄하시킬 때 발생한다. 즉,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존재들 중 인간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의 가치는 단지 그들이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계론의 어떤 주장이 인간 이외의 존재들에게서 고유의 본래적 가치를 앗아가는가?

잘 알다시피, 기계론은 자연 안의 모든 사물들을 기계로 본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기계로 보는 시각에는 인간도 예외 없이 포함된

다. 기계론은 인간 역시 기계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일부의 기계론의 경우, 단지 인간만은 기계론적으로 약간 예외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인간의 신체는 주로 기계론적 법칙에 의해 지배되지만 반면 인간의 정신은 기계론에서 벗어나는 신비한 면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이 바로 이른 바 데카르트의 신체-정신 이원론의 핵심 주장이기도 하다. 물론 데카르트에게서, 인간은 기계론적 법칙에 단지 부분적으로만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인간 외의 존재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기계론적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의 철학자들이 자연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된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오늘날과 달리 자연과학의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서 단순했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의 한계 내에서 볼 때,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기계와 같기에 그것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 작동할 수 없는 존재였다. 즉, 마치 하나의 시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우처럼, 모든 기계는 단지 제작자의 목적에 맞추어 작동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스스로 작동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든 존재자들이 이렇게 이해될 때 근대주의의 세계관이 인간 중심적 경향을 지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근대주의의 빛에서 볼 때, 모든 사물은 스스로 목적을 지닐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들은 오로지 인간의 문명적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가치를 지닐 수 있었고, 이를 따라 인간중심적으로 도구화되었다. 즉, 인간 이외의 존재들은 모두 인간을 위한 가치를 갖는 한도 내에서만 존재적 의의를 지닐 수 있었다.

물론 근대의 기계론이 인간중심적 견해를 초래하는 데에서만 문제점을 지녔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 이론으로서도 매우 중대한 결함을 지니는데,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그중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정신-신체 이원론이다. 특히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근대의 정신-신체 이원론은 어떻게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끼치고, 신체는 정신에 영향을

16 장 왕 식

끼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두 개의 영역이 너무 근본적으로 달라서 양자는 결국 이원화되어야만 했는데, 이는 결국 상호 다른 두 개의 차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관심하는 것은 생태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기계론이 지닌 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그치자. 이하에서는 어떻게 화이트헤드가 기계론의 문제를 생태학과 연관시켜 다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는지에 집중하자.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화이트헤드의 개혁된 주관주의 이론에 근거한 주체이론을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 기계론이 가져온 문제들에 대한 극복도 바로 이 개혁된 주관주의 이론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하나의 존재자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여건을 종합하는 과정, 즉 합생(concrescence)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합생이란 과거를 종합하는 과정인데, 만일 그런 종합 과정이 그저 단순히 과거의 반복으로 그치고 이후에 새로움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계론이 주장한 내용에서 크게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관적인 목적을 지니지 않는 기계는 외부에서 새로운 목적이 주어지지 않는 한 언제나 과거를 반복한다는 것이 기계론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계론이 의지하는 하나의 존재론에서는 새로움과 차이의 탄생을 설명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모든 존재는 단지 과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존재론은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을 지닌 존재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신의 환경의 영향과 화학적 충동 하에서, 혹은 단지 자신의 DNA의 영향 하에서 스스로의 행위와 존재를 구성해 가는 미생물이 있다고 치자. 이 경우 그 미생물은 하나의 경험을 향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해도 그 것을 진정한

의미의 주체로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일 하나의 존재자가 단지 과거의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단순한 반복을 거듭하고 있을 때, 그것만으로는 타자와 우주를 향해 새롭게 공헌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체성을 지닌 존재로 평가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기계론이 지닌 몇 가지 이론적 약점에 대해 설명했거니와 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기계론은 세상의 존재자들이 생산해 내는 새것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 어려움을 노출한다. 나아가 기계론은 지구 위에 거하는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주체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설명할 때도 난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에서 말한 대로 화이트헤드가 어떻게 기계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볼 때, 기계론이 지닌 여러 약점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다. 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주체가 여건을 종합할 때 그곳에서 단지 과거의 반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것이 생성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만 가능하다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주장한다. “다자는 일자가 되며, 그리고 일자에 의해서 증가한다” (화이트헤드 1978a: 21/79).

여기서 일자에 의해서 증가한다는 말의 뜻은 과거의 여건을 종합한 다자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새것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동원하는데, 즉 합성의 과정에 있는 임의의 존재가 스스로 새것을 창출할 기제를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주체적 형식 (subjective form) 혹은 주체적 지향(subjective aim)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후자는 때로 주관적 목적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화이트헤드는 이를 중심으로 해 새것과 차이가 발생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주체적 지향, 혹은 주체적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18 장 왕 식

화이트헤드 체계 내에서는 모든 현실적 존재자가 예외 없이 주체적 목적을 갖는다. 화이트헤드는 이를 작용 인과성 (efficient causation) 과 구별되는 목적 인과성 (final causation)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데, 전자가 과거의 대상에서 비롯되어 주체에 영향을 끼치는 물리적 영향을 지칭한다면, 후자는 과거의 대상에서 비롯되지 않는 새것, 즉 주체 스스로가 만드는 차이화의 능력과 기능을 지칭한다. 이런 구별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것이 창조되는 근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각 존재자가 하나의 고유한 주체적 목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적 목적이란 개념으로 뜻하려는 것은, 모든 존재자들이 스스로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며, 이에 근거해 “주체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의 존재가 주체적인 것이 되는 근거는 그것이 스스로의 목적과 지향에 의거해, 과거로부터 주어진 여건(data)의 영향력에서 비껴가는 자발적 역량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또 다른 토론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의 철학”을 다룰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단지 화이트헤드가 모든 존재들이 주체적인 목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새 것의 탄생을 주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이는 그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일종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들여와 기계론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이제까지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일종의 목적론적 세계관을 도입함으로써 새 것과 차이의 생성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첨가 되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해 오해만 가중될 것이고 주체적 목적론도 자칫 그 취지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론적 세계관과 관련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즉, 화이트헤드의 목적론적 세계관에서는 반드시 기계론

적 이해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목적론과 기계론은 같이 간다.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족할만한 우주론은 작용 인과성과 목적 인과성을 함께 엮어야 한다”(화이트헤드 1929: 22).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볼 때, 근대주의가 기대고 있는 우주론으로서의 기계론만으로는 결코 만족할만한 세계관을 제공하지 못한다. 물론 목적론적 세계관만으로는 더욱 안 된다. 그렇기에 근대성이 초래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새로운 우주론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런 새로운 우주론에서는 항상 기계론에 덧붙여 일종의 목적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우주론이 생태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체적 목적을 소유한 하나의 존재자는 온전한 의미의 경험과 더불어 새것을 생산해 낼 것인데, 그로 인해 세상과 우주에 새로운 차이를 만들면서 공헌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록 하나의 존재자가 아무리 미미한 의미의 경험 밖에는 향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존재자 스스로는 고유의 본래적 가치를 소유할 수 있기에 이런 존재자들이 넘치는 세계에서는 생태학적 차별의 문제들이 발견되기 힘들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자신의 세계관을 유기체의 철학이라 명명했는데, 여기서 유기체란 기관과 기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내적 관계(internal relationship) 이론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대로 모든 존재자에게 일종의 주체적 목적을 부여하는 이론이다. 일종의 수정판 목적론적 세계관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화이트헤드는 종종 근대철학의 종결자인 칸트의 주관주의 철학을 비판하면서도, 유독 그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지닌 가치는 배제하지 않으려했다는 것이다. 이는 화이트헤드가 느끼기에, 근대주의가 만들어낸 오류와 약점의 배경에는 목적론을 무조건적으로 폐기하려 했던 근대철학자들의 잘못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화이트헤드는 이를 지적하

20 장 왕 식

는 것을 본인의 철학적 임무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유기체의 철학이 주로 칸트 이전의 사고 양식에로의 회귀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근대에는)...유기체의 철학이 기초로 삼고 있는 요소들이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었다”(화이트헤드 1978: xi/40).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유기체론에 근거해 어떤 식으로 이런 자신의 수정관 목적론과 전통적인 형태의 목적론을 차별시키는지 살펴보자.

우선 여기서 수정관 목적론으로 화이트헤드가 말하려는 바는, 결코 닫힌 의미의 목적론, 즉 자연세계가 하나의 고정된 최고선으로서의 목적을 향해 진화해 간다는 주장의 목적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정되고 닫힌 최고선을 향해 움직이는 세계관은 바로 전통적인 목적론의 핵심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형이상학에서도 자연 세계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해 전진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목적의 끝에는 아름다움(Beauty)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주장과 다르다. 그러기에 화이트헤드는, “우주의 목적론은 아름다움의 산출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화이트헤드 1996: 406).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beauty), 혹은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진(truth)이나 선(good)의 관점과 달라서, 한 쪽과 또 다른 한 쪽이 날카롭게 적대적으로 나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추, 혹은 선/악 등의 범주들이 날카롭게 이분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미”를 중심으로 놓는 수정관 목적론에서는 선악의 이분화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목적론, 예를 들어 신학적 목적론과 섞이기가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화이트헤드 체계 내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이상적 목적을 지향하더라도 그것들이 반드시 고정된 궁극적 목적 같은 것, 말하자면 신의 목적 같은 것을 겨냥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가 개정된 주체이론과 그것에 기초한 개정된 목적론에 기초하여 유기체의 철학을 전개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균형 잡힌 새로운 형태의 우주론과 마주하게 된다. 즉, 세계는 물리적인 면에서는 기계론적인 경향을 지니지만, 그것은 동시에 물리

적인 요소가 지닌 반복을 넘어서서 새로움을 창출하는 정신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작용 인과성과 목적 인과성의 균형을 통해 정립되고 있다. 쉽게 말해 모든 존재는 타자의 영향 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체적 목적에 기초해 타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이며, 이런 원칙은 인간 이외의 존재자들, 예를 들어 아원자 수준(subatomic level)의 전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적 목적을 말하는 그의 유기체의 철학을 생태학적 대안으로 고려할 때 또 한 가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사항이 있다. 즉, 비록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일종의 목적론을 말하고, 나아가 모든 존재자들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생태학적 철학을 전개하는 듯이 보여도 그것이 결코 모든 존재들 사이의 무분별한 가치론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사용한 암석의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해 보자.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의 철학은 분명히 암석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전자와 같은 미립자들에게도 주체적 목적을 부여한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런 이론이 결코 암석의 주체성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않는다. 즉, 암석과 같은 비유기적인 사물은 단지 아원자적 형태의 에너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일종의 균일한 모습으로 뭉쳐있는 입자의 덩어리일 수는 있어도 암석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주체로서 간주될 수는 없다. 암석 내의 전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비-의식적인 방식을 따라 주위의 대상과 환경을 감지할 능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의 상위 존재인 암석 자체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주체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분으로서의 전자들은 나름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어도 그것의 합으로서의 암석이 지닌 조직과 체계는 암석에게 주체성을 보유하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주체성을 창조해 내기 위해서 부분들은 단순히 뭉쳐 있는 합체의 상태를 넘어서 조직과 체계에 있어 차이를 만들어 낼 질서를 보유해야 하는데 암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22 장 왕 식

이제까지 우리는 유기체의 철학이 기계론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아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여전히 생태학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형이상학을 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서는 기계론과 목적론이 병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나아가 그에게서는 모든 존재자들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지니는 것으로 주장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화이트헤드는 일종의 심층 생태학의 입장과 유사한 세계관을 펼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동시에 화이트헤드는 각 존재자들이 스스로의 주체성을 갖는 정도와 수준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분명히 화이트헤드의 입장은 심층생태학자들과 다른 입장을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 구성원들의 수준과 정도의 차이를 유지하는 생태학은 결국 하나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으로 또 다시 회귀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 토론할 차례다. 화이트헤드는 생태학에서 항상 골칫거리로 여기는 문제, 즉 탈-인간중심적 생태철학을 펼치면서도 동시에 존재들이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주장될 때 생겨나는 문제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화이트헤드는 탈-인간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매개하면서도 동시에 그 양자 사이에 적합한 형태의 균형을 제공하는 난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과연 화이트헤드 철학과 심층생태학 사이의 진정한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IV. 심층 생태학의 문제와 탈-인간중심주의

먼저 심층생태학의 입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토론을 시작하자. 물론 심층생태학(deep ecology)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따라서 그것의 핵심 주장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논자의 생각

에, 대부분의 심층생태학이 지닌 공통 내용을 소위 네스Naes와 세션스Sessions가 1984년에 제안한 “심층생태주의”의 강령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약속될 수 있다.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¹⁾

이를 우리의 토론을 위해 다시 짧게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존재자들은 스스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둘째, 이들은 인간이라는 특수 집단을 위해 도구로 사용될 수 없고, 셋째, 모든 생태정책은 인간이 아니라 그들을 우선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은 세 번째라 할 수 있다. 셋째 주장의 핵심은 모든 생태정책이 인간이 아니라 생태계 내의 존재자들 위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결국 이는 심층생태주의를 매우 급진적인 탈-인간중심적 입장으로 취급할 수 있게 만든다. 심층생태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만일 이런 주장이 견지되지 않는다면 인간 이외의 여타 피조물들은 단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생태계 존재자들 사이의 동등성에 균열을 가져와 자연생태계의 착취행위를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만일 심층생태학의 입장의 핵심이 이러하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분명히 부분적으로 심층생태학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았듯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적 체계 내에서 모든 존재는 각각 고유한 의미의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가치는 인간의 개입과 상관없이 모든 존재자에게 평등하게 내재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은 심층생태학이 주장하는

1) 이는 저서로는 출간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에서 Naes & Sessions의 deep ecology를 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4 장 왕 식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다. 이미 살펴본 것같이, 모든 존재자들은 주체성의 강도에서 각기 다른 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주체적 목적을 설명할 때 드러났듯이, 모든 존재자들은 각기 고유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 가치는 언제나 해당 존재자가 지닌 주체적 목적에 의해서 구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주체적 경험을 향유하는 풍부성의 강도에서 모든 존재자들이 만들어 내는 가치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자. 화이트헤드의 입장에서 보면, 전자(electron) 보다는 원자 단위의 존재자의 주체적 경험이 보다 풍부할 것임은 자명하다. 더 나아가, 단세포 생물보다는 포유류의 주체적 목적이, 그리고 포유류 보다는 인간의 주체적 목적이 보다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 가치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식을 사용하는 인간의 경우와 달리,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그들이 과거의 여건을 종합할 때 단지 그 여건으로서의 대상이 주는 에너지를 그저 물리적으로 혼합하는 단계에서 경험을 끝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존재자가 만든 가치의 전부를 규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낮은 수준의 경험은 결코 전체 세계의 가치 상승에 전혀 공헌 하지 못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해당 존재자는 주체성의 강도에서 인간보다 분명히 저급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화이트헤드 체계 내에서 분명히 인간은 가치의 등급 상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런 분석이 옳다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분명히 일종의 인간중심주의를 허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결론부터 대답해 보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분명히 인간중심주의를 결과하지 않는다. 우선 우리도 잘 알다시피,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태동된 이래로 거의 한 세기가 지나갔지만, 인간중심주의의 탈피를 시도하는 철학과 관련해 화이트헤드만큼 공헌한 철학자도 서구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분명히 화이트헤드는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존재자의 본래적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했으며, 이는 인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골고루 내재하는 가치다. 따라서 그 어떤 인간 이외의 존재들도 그들의 고유한 본래적 가치에서는 모두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그 어떤 생태학적 입장도 화이트헤드의 탈-인간중심주의적 경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헤드 철학은 인간의 의식이 과거의 여건을 종합하는 능력에서 최상의 수준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체적 목적의 행사를 통한 가치의 생산에서 각각의 존재자들 사이에는 분명히 등급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존재자들이 소유한 본래적 가치의 수준에서도 우월과 열등의 차이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 공동체 전체가 지니는 경험 수준의 상승에 인간은 분명히 우월하게 공헌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인간의 문명적 공헌이 기술주의를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이는 분명히 생태계의 파괴를 결과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구 공동체 전체의 공헌도에서 인간 경험의 풍부함이 반드시 그의 주체적 우월성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우주 공동체 내에서 다른 여타 존재자들의 위치와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위상을 차지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우주 내의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존재자들의 본래적 가치 사이에 등급을 가하면서 그것을 통해 가치의 위계에 차이를 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내에서 인간만은 특유하고 비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지구 내의 존재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종(種)들을 분류하고,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소멸될 위기에 닥쳐 있을 때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은 주체적 경험의 풍부함에서 각각의 존재자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서 인간이 담당해야 할 책무와 그 위상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는

26 장 왕 식

말이다. 이렇게 화이트헤드는 분명히 탈-인간중심주의적인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기에 일종의 인간중심적인 입장에 대해 함께 긍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애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난관이 단지 화이트헤드의 사상만이 직면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심층생태학도 동일한 종류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심층생태학이 주장하는 바, 모든 존재자들이 지닌 본래적 가치의 무차별적 평등함을 인정한다고 치자. 따라서 그 어떤 의미의 인간 중심적 사고에도 반대한다고 치자. 그러나 이런 경우 심층생태학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만일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을 따라 어느 특수한 풍뎡이 종을 보호해야 한다고 치자. 이를 위해서 해당 풍뎡이의 포식자가 되는 조류를 없애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조류가 집단 서식하는 산림을 태워 버리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 경우 정부의 결정은 그 지역의 산림과 토지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 가는 가난한 농부들의 삶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 올 것이다. 이렇게 인간 이외의 종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탈-인간중심주의도 문제를 일으키기는 데서는 예외가 없다. 이런 점에서 심층생태주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전적으로 배제해 버릴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심층생태주의의 근본 문제는 그들이 취하는 입장, 인간의 종보다 인간 이외의 종이 더욱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진정으로 생태가 보존된다는 입장 역시 그들이 취한 인간적 해석과 사고의 산물이라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도 인간중심주의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모든 이론들은 언제나 그것이 실천적인 면에서 현장에 적용될 때 항상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관건은 어느 이론과 철학이 보다 온전하고 이상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적합성을 지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며,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하나의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화이트헤드가 제시하는 형이상학적 주장들은 하나의 이론이지만, 그것의 적용성

에 있어 다른 것보다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화이트헤드 철학이 지닌 이런 실천적 적용성에 대해 다루어 보자.

V. 실천의 문제와 형이상학적 대안

위에서 방금 살펴보았듯이, 생태학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누구나 겪는 가장 어려운 난점은 실천적 적용의 문제이다. 따라서 하나의 이론이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취급되기 위한 척도는 그것이 실천적 적용성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보이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많은 논객들은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지닌 장점 중의 하나로서 그것의 실천적 적용성을 꼽는다. 논자의 생각에도 화이트헤드 철학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그의 형이상학적 체계가 지닌 설명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

우선 형이상학과 관련된 화이트헤드의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사변철학이란 우리의 경험의 모든 요소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일반적 관념들의 정합적이고 논리적이며 필연적인 체계를 축조하려는 시도이다”(화이트헤드 1978: 49). 논자의 생각에, 생태학적 문제를 치밀하게 철학적으로 분석하려 시도하고, 나아가 그것에 해결책을 제시하려 할 때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그의 형이상학적 체계가 보여주는 온전한 설명력이다. 형이상학이 끝났다고 외치는 오늘의 시대에도 화이트헤드가 새로운 형태의 형이상학을 제시했다는 사실은, 바로 생태학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어떤 이들에게 매우 의외의 주장으로 들릴지 모른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탈-형이상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이트헤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그의 형이상학적 특징에 있다고 주장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28 장 왕 식

물론 서구철학사에서 형이상학은 여러 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철학자들 중에는 아직도 형이상학의 이점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이트헤드도 그 중의 하나다.²⁾ 화이트헤드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학과 관련해 형이상학이 공헌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의한 점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형이상학이 지닌 일반적인 설명력에 근거해 화이트헤드는 우리로 하여금 생태학과 연관된 문제들을 매우 복잡적이고도 중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생태학의 문제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제의 복잡성과 중층성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생태학적 문제는 결코 단일한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과학적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것은 경제 정책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육정책과의 연관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생태학적 문제가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이유는 그것의 어원에서도 쉽게 나타난다. 생태학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ecology=oikos(집)+logos(말)이다. 즉, “집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우주 및 자연, 혹은 세계라는 이름의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을 논의하는 것이 생태학이라는 말이다. 생태학이 단순히 생물학적 장르를 넘어 지구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바로 이런 어원적 의미에서 기인하는데, 하지만 이는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이 가지는 하나의 의미와 일정부분 동일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화이트헤드는 형이상학의 기능 중의 하나를 바로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복잡다단한 제반 요소들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데서 찾기 때문이다.

2) 최근의 가장 인기 있는 생성의 철학자 중의 하나인 들뢰즈도 일종의 형이상학적 경향을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들뢰즈 사상의 문화』에 수록된 논문인 “들뢰즈와 ‘meta-physica’의 귀환”을 보라 (이정우 2007: 95-98).

그리고 이는 단지 생태적 문제를 다룰 때 중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세계 내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마다 우리는 항상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화이트헤드가 말할 때, 이런 그의 주장은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극적 관점으로 논자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문명적 접근이다. 즉, 생태학적 문제는 결코 단순한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낡은 전통적 문명을 새로운 문명으로 대체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명이란 여러 집단의 관습을 하나로 묶은 것이며 따라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것이기에, 인간이 저지른 생태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도 문명적 접근이 아니면 결코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사고가 쌓여 관습을 만들고, 관습이 쌓여 문명이 창조되는 것이 맞다면, 결국 문명이 바뀌면 관습이 바뀌고, 그것은 사고를 바꿀 것이며, 중국에는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잘 알다시피, 화이트헤드는 그의 기념비적 형이상학 저서인 『과정과 실재』를 저술한 직후 『관념의 모험』이라는 문명론과 연관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관념과 이념을 어떻게 전환시켜 낡은 세상을 바꾸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새로운 문명론을 모험적으로 시도하는 저서이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화이트헤디안들은 바로 이런 생각에 힘입어 화이트헤드 철학에 기초한 “생태문명”의 이식이나섰다. 중국의 경우 미국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화이트헤디안들이 중국정부의 후원 하에 공식적으로 세운 과정연구소와 센터가 36개를 넘기고 있다. 독자들은 <http://postmodernchina.org>에서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서방의 종교 세력의 침투를 경계해 온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중국의 생태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 대안 중 하나로 화이트헤드의 철학이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어떻게 화이트헤드 철학의 형이상학적 특성이 생태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지 주로 문명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논자의 생각에 화이트헤드의 철학의 형이상학이 생태학에 공헌하는 가장 큰 공헌은 그것의 실천에의 적용을 위한 이론의 확립에 있다고 말했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근대주의의 또 다른 문제와 관련시켜 토론해 보자. 그것은 근대주의가 지닌 가치-중립성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이다.

VI. 가치중립적 사고의 극복과 신(God)의 문제

근대성이 가치-중립적 입장을 낳게 되는 이유는 근대주의가 택한 세계관이 기계론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연과 세계가 기계처럼 구성되어 있다면, 이때 그 세계 내의 존재자는 주체적 목적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해당 존재자로 하여금 가치판단을 내릴 때마다 혼란을 겪게 만든다. 초보적인 인지의 수준에 있는 존재자들은 아예 스스로의 방향성을 지니지 못한 채 외부가 부여한 목적에 순응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상위의 의식 수준을 지니고 있는 인간 존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계론적 세계관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스스로의 목적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물리적 여건들 (예를 들면 DNA)의 명령에 순응하게 된다. 또한 그런 인간 존재자들은 비록 그들에게 고상하고 의미 있는 목적이 부여되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주로 물리적 여건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안전한 프레임에 안주하기를 원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새로움을 향한 모험의 추구가 약해지게 되고, 냉철한 가치판단에 의거한 과감한 결정 보다는 현상의 유지(status quo)에 급급한 경향이 팽배하게 된다.

이런 배경적 이유로 인해 화이트헤드는 기계론적 세계관 위에 목적론적 세계관이 병렬적으로 보완된 세계관을 추천했음을 우리는 앞에

서 보았거니와, 사실 이는 근대철학의 종결자였던 임마누엘 칸트가 인류에게 남겨준 유산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 역시 앞에서 짧게나마 이미 살펴보았기에 여기서는 단지 생태학적 문제와 관련해 칸트가 남긴 목적론적 세계관의 유산을 어떻게 화이트헤드인들이 활용해 왔는지에 대해서만 논구해 보자.

화이트헤드안으로서 최근까지 폭넓은 생태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존 캡(John Cobb)은 생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향의 하나로서 대학에 만연되어 있는 가치중립적 세계관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외치고 있다. 존 캡에 따르면, 오늘의 대학은 단지 학생들에게 수많은 정보의 획득을 중용할 뿐, 가치판단을 위한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에는 관심이 적다(존 캡 2018: 49-50). 이런 식의 교육정책에 물든 상태에서 교육된 학생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마다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향을 띠거나, 혹은 아예 잘못된 외부의 결정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이 오늘날 이렇게 된 배경적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전 지구적으로 전파된 해체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하나의 이유다. 잘 알다시피, 탈근대주의로서의 포스트모던 세계관은 그동안 문명의 중심에서 인류를 이끌어가던 보편적인 가치들, 예를 들어 신, 이성, 목적, 형이상학적 이상 등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 누구도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는 단지 현실의 안주에 머물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물론 가치중립적 세계관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때로는 일방적이고 편협한 세계관에 기초한 판단들이 오히려 조급하고 질 나쁜 결정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중립적 세계관은 엄밀히 말해서 가치중립적으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가치중립적 세계관에 기초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가치-편향적 결정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의 사례를 우리는 자본주의 독점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존 캡은 가치중립적 세계관을 따르는 고등교육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자본주의의 독점문화라고 한다(존캡 2018: 53-54). 즉, 대부분의 대학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로 자본가들의 기금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이때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결국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 판단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입김에 좌우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적 독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은 주로 고소득 직업군에 몰리게 되며, 이는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전공영역과 과목의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의 대학들이 인문학 과목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혹은 다양한 전공을 줄여가면서, 주로 기술과 소비의 진작과 연관된 전공만을 남기는 경향도 이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치-중립적 입장이 어떻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그 배경적 이유를 잘 알게 되었다. 가치중립적 입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하고 복잡한 상황 하에서 과감한 판단을 유보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나아가 가치론적 상대주의의 영향 하에서 주로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치-편향적인 자본주의의 독점 문화에 경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문화가 빚어내는 가장 최악의 결과는 생태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가치중립적 사고가 근대성이 지닌 기계론의 산물임을 지적했거니와, 그것의 해결책으로 하나의 목적론적 사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입장이었음을 확인했다. 이런 입장은 생태학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올바른 사고와 그에 따른 판단을 갖추는 것은 물론 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결단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런 역량은 바로 이상적 목표를 지향하는 주제적 목적의 확보에 의해 수월해 질 것이다. 목적론적 사고의 진작은, 인간이 스스로 올바르게

고 이상적인 목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겨냥하면서 그 방향을 따라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점을 지닐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적론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잘못된 형태의 목적론적 자연관이 지닌 오류와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칸트도 그 중의 하나였고, 화이트헤드 역시 전통적인 의미의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비판을 가한다. 대부분의 전통적 목적론들은 일종의 물활론, 혹은 애니미즘을 따라서 자연을 영적(spiritual) 존재로 보는 경향을 띠어 왔다. 이는 인간에게 미신적 사고를 부추기며,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건전한 형태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지니고 있는 순기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즉,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연 속의 존재자들은 언제나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습관에 매몰되는 경향을 지닌다. 특히 초보적 수준의 존재자들일수록 과거로부터 온 물리적 여건들을 종합할 때 언제나 현상의 유지에 머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어떻게 가능한 한 과거의 여건들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넓힐 것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 대한 안주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의 주체적 목적을 촉발시켜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화이트헤드의 답이 바로 유기체의 철학에 근거한 건전한 형태의 목적론적 세계관이다. 이 세계관에서는 하나의 존재자가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언제나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 전체가 지닌 이상과 목적을 고려하게 되며, 또한 그렇게 할수록 그 공동체는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적 이상을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의 존재자는 주위 환경의 존재자들과 여건들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수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결정 과정에서 공동체의 이상적 목적을

34 장 왕 식

고려하는 경향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그들은 이런 공동체들의 연합, 즉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지닌 보다 높은 이상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게 될 것인데, 이는 말하자면 우주의 복지를 창출하는 최종적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목적론적인 사고의 특징은 우리를 일종의 종교적 세계관과 연관시키도록 만든다. 화이트헤드의 형이상학이 목적론적 사고를 견인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신(God)을 상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화이트헤드에 따르면 신은 공동체들의 공동체가 지닌 목적을 직시하는(envisage) 존재로 기술된다(화이트헤드 1978a: 353). 따라서 근대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이상적인 가치를 목적하는 사회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에 대해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결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 신이 전제되어야 그런 사회의 정립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도식에 따르면, 인간은 살기를 원하고(to live), 또한 잘 살기를 원하며(to live well), 중국에는 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한다(to live better) (화이트헤드 1929: 5).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속성이다. 그런데 이는 바로 인간의 주체적 목적과 연관되어, 인간들의 경험이 보다 풍부한 상위의 경험으로 발전되도록 연결된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은 더 많은 타자 유기체들과 더불어 공동체의 이상적 목적을 지향할 수 있어야 그들의 경험이 풍부해 질 것이며, 세계 내에서의 다양성도 증가될 것이다. 그 결과 공동체 전체의 경험도 풍부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궁극적 목적, 즉 공동체들의 공동체인 전 우주 공동체의 목적을 미리 알고 있는 궁극자가 구성원들에게 바로 그 이상적 목적을 제시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존 캡에 따르면, 화이트헤드에게 신은 바로 이런 목적을 궁극적 이상으로 직시하면서 존재자들이 더 좋은 가치의 세계로 상승하도록 유인하는 존재라고 해석될 수 있다(존 캡 2018: 44).

만일 신이 하나의 궁극적 존재로 우주의 최고점에 자리하면서 전체

공동체에게 이상적 목적을 지향하도록 유혹하게 되면 그로 인해 세계 내에서는 저절로 다양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한도 내에서 모든 존재자는 더욱 강도가 높은 경험의 풍부함을 누리면서 공동체 전체의 가치가 극대화 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생태학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존재자들이 자신의 만족을 결정을 내리기를 원할 때 가능하면 지구 공동체 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주체적 목적이 골고루 반영되어 우주 전체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의 궁극적 목적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화이트헤드는 바로 이점을 우려해 신이 직시한 최고의 이상이 최종적으로는 최고의 아름다움(Beauty)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이것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 화이트헤드가 “우주의 최고의 목적론은 아름다움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다(화이트헤드 1996: 406). 이는 바로 우주의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과 조화를 꾀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 이상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또한 그렇기에 세상은 신의 진리와 선이 강제되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아름다움을 향해 열려있는 개방계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화이트헤드가 세계 안에 목적론을 들여오면서 무슨 이유로 신을 상정하는 지를 보았다. 화이트헤드의 신은 세계라는 공동체가 모든 존재자들의 경험을 골고루 반영하도록 만들며 이런 다양성이 아름다움 안으로 조화되어 우주의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화이트헤드디안들은 지구 공동체의 가치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존재의 필요성에는 공감할지는 몰라도 그런 신이 반드시 유신론의 신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갈리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로버트 메슬 Robert Mesle에 따르면, 최상의 이상으로 유인하는 궁극자를 상정할 필요성이 설사 요구되더라도, 많은 경우 그런 별도의 존재 없이 자연주의적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공동체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로버트 메슬 2003: 204-208).

하지만 이런 상호 이질적인 견해가 내재하는 세계가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상황이기에, 우리의 할 일은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하나의 포괄된 공동체 내에서 경험의 풍부함과 가치의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될 것이다.

VII. 결론

문명은 이제까지 인간의 문명이었다. 정확히 문명은 인간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문명이었다. 근대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젠 이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생태와 환경은 계속 교란될 것이며 결국 인간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문명은 그저 자연의 흐름이며, 과정이며, 이행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 동아시아의 도교가 그랬고 서구의 심층생태주의의 입장이 그랬다. 화이트헤드도 부분적으로 이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유는 분명히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고 믿는다. 실제로 이런 입장들은 생태와 환경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 분명한 성과를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연친화적인 입장에서 문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인간이며, 생태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낡은 문명으로부터 생태-친화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인간이다. 결국 생태학적 문제에 관한한 자연 스스로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결국 자연과 인간이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자연과학이 분석한 결과를 따라서 일단 자연의 기계론적인 면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연에 주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연과 생명에 기초한 문명을 건설하려 했는데 이런 그의 철학적 입장도 자연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학문적 결과의 산물

이었다. 다른 한편 그는 자연과학의 학문적 결과를 철학화 하는 과정에서 기계론의 위험을 간파했다. 기계론을 낳은 근대주의 철학은 종종 인간의 행위마저도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려 했는데, 이는 인간의 도덕적 결정에서 나태함을 낳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현상의 유지(status quo)에 안주하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화이트헤드는 그의 철학에 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했다. 결국 생태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해결에서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책무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계론에 목적론을 추가한 문명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학문적 과제는 이런 화이트헤드의 기획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적절히 해석하고 생태학에 올바르게 적용하느냐의 될 것이다.

어떤 길을 가든 화이트헤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첫째로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 둘째로, 인간 역시 그런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 셋째,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자연 안에서 가장 중대한 책무를 부여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토대로 하여, 자연과 인간의 이상적 조화와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건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때 결국 우리는 생태의, 생태를 위한, 생태에 의한 문명의 건설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그리핀, 그리핀 (2010) 『위대한 두 진리』, 김희현 역, 동연.
- 그리핀, 데이비드 (2004), 『화이트헤드 철학과 자연주의적 종교론』, 장 왕식/이경호 역, 동과서.
- 메슬, 로버트 (2003), 『과정신학과 자연주의』, 이경호 역, 이문출판사.
- 버치, 찰스 & 갑, 존 (2010), 『생명의 해방』, 양재섭/구미정 역, 나남.
- 갑, 존 (2018),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한윤정 역, 지구와 사람.
- 화이트헤드, A. N. (1978a), 『과정과 실재』, 오영환 역, 민음사.
- _____. (1991), 『과학과 근대세계』, 오영환 옮김, 서광사.
- _____. (1998), 『이성의 기능』, 김용옥 역안, 통나무.
- _____. (1996), 『관념의 모험』 한길사.
- Naess, Arne. and Sessions, George. (1984), “Basic Principles of Deep Ecology.” in www.deepecology.org.

【Abstract】

Toward an Ecological Civilization

- From a Whiteheadian Perspective -

Jang, Wang Shi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philosophically attempts to analyze the root causes of ecological problems. Based on that, it proposes the construction of an ecological civilization as an alternative to those problems. This alternative is pursued based on Whitehead's philosophy of organisms.

From a Whiteheadian perspective, ecological problems arise in conjunction with the core theory of modernism, e.g. mechanism and human-centered understanding of subjectivity. Of course, These two theories have contributed a lot to the advancement of moder civilization. But at the same time, it has brought about ecolofical problems too. I first attempt to explain how these two theories have become the core messages of modernism, and further explains how they have been the root cause of today's ecological problems.

But this article not only points out the negative side of modernism, but also seeks for a solution to it. I will argue that those problems caused by human-centered understanding of subjectivity can be tackled by a pan-experimentalism in Whitehead philosophy, and further point out that those problems caused by mechanism can be solved by the philosophy of organisms.

This paper also compares the claims of Whitehead's ecological philosophy with those of a deep ecology. I will first point out that

40 장 왕 식

Whitehead's philosophy has some similarities to the positions of deep ecology in many ways. This is because his philosophy of organisms boldly acknowledges the subjective identity of non-human beings. But Whitehead's philosophy is distinct from deep ecology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claim indiscriminate equality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In the process of elucidating this, I will further show how the ecological civilization theory based on Whitehead philosophy sees the status and role of human beings in eco-systems.

Key words : Ecological civilization, Mechanism, Human-centrism, the Philosophy of organism, Pan-experientialism, Deep ecology.